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 구간 개통 등 36개 현안 지원 요청

■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

전남도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예산 국회'를 앞둔 '국비 확보 전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국비 확보에 실패하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만 늘어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힘들게 하는 만큼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민선 7기 핵심 현안 사업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비롯,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된 전남 현안 사업비 증액과 반영에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 구간 개통 등 36개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7건의 정책 지원 사항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대표적인 현안 사업으로는 ▲남해안권 해양관광 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신소득 유망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 구축 ▲도시지역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경전선(광주순정-순천) 전철화 사업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 도로 개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조 기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 구간 개통 ▲순환용 항공기 전용 비행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등이 꼽혔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에 일부만 반영된 만큼 전남도는 다음달 예산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 구축

경전선 전철화·무안공항 활성화

국회 심의과정 예산 반영 요구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지원도

서 요구했던 설계·착공비 145억(총사업비 1조7055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무안공항도 활주로 연장을 위한 시설 계획(10억) 외 조기 착공에 필요한 예산(140억) 반영이 절실하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20개 가까운 국제선 개설로 100만 명을 유박하는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점을 감안,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도 요구액 50억(총사업비 1156억) 중 5억만 확보하는 데 그친 상황이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위한 핵심 거점 공간이라는 점에서 전남도는 이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기후 변화로 아열대 작물 재배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 실정을 고려,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조성사업(총사업비 450억)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열대작물 실증센터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열악한 농업 현실을 개선하고 농사의 패러다임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경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예결위간사, 김경우 기재위간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이승숙 강진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등이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비 쟁기기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지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 여수 유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 ▲흑산공항 조기 건설 ▲하의-장산-완도-고흥 등 주요 SOC 국가계획 반영 등 7건의 정책 지원도 건의했다.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는 한전공대 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혁신도시에너지밸리 일대를 첨단에너지과학기조

발돋움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 시설이라는 점을 내세워 적극적인 유치에 나선 상황이다. 장성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립 심뇌혈관센터도 대통령 공약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

미' 관련 사업이 착실하게 실현되도록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와관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사업 등 국회에서 증액할 사업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문 대통령, 부마항쟁 기념식 참석... "어떤 권력도 국민 위 군림 못해"

강력한 검찰 감찰 방안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부마민주항쟁이 지난날 국가 기립일로 지정된 뒤 첫 기념식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규정하고 "비록 신군부의 등장으로 어둠이 다시 짙어졌지만 이번엔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치열한 항쟁을 펼쳤고 마침내 국민은 87년 6월항쟁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경숙 여사가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리의 소원'을 함께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과 이성운 검찰 국장을 면담하고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상호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준

비가 되면 직접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면담은 오후 4시부터 48분간 진행됐으며, 애초 예정에 없다가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호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작가들의 작업장, 뮌헨 발트베르타 저택



(285) 작가의 방

오래 전,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탐방하여 '작가의 방'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물을 썼던 적이 있다. 일가를 이룬 예술가들이 었기에 대부분의 작가들에게 작업실이 있었지만, '가난해진' 한 시인의 경우 집 앞 카페가 집필실이었던 기억이 있다.

여성의 차별이 심했던 때로서 제도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독학으로 지식과 지성을 쌓았던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도 일찍이 고정적인 수입과 '자기만의 방'이 있다면 여성도 전업작가가 될 수 있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작가의 열정 못지않게 예술적 공간도 필요했기 때문

일 것이다.

요즘엔, 작가들이 꼭 '자기만의 방'이 없더라도 예술가들이 입주할 공간을 제공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활발해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광주만 해도 시립미술관을 비롯, ACC, 광주문화재단 등 기관과 여러 대안 공간이 다양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에드워드 헤리스 콤포튼(1881-1960)의 '발라 발트베르타 전경'(1930년 작)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독일 뮌헨시와 국제레지던시 교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트베르타의 저택을 그린 수채화이다. 발라 발트베르타는 멀리 알프스산이 보이고 바다와 같은 스타베르그 호숫가에 위치한 개인 소유의 저택이었다가 1982년부터 뮌헨시에서 인수받아 국제적인 작가 레지던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현재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2명도 이곳에서 3개월간 머무르면서 새로운 작



헤리스 콤포튼 작 '발라 발트베르타 전경'

업에 몰두하고 있다.

독일의 유명한 풍경화가이자 삽화가인 에드워드 헤리스 콤포튼은 알프스산에서 예술적 영감을 받아 '산의 화가'라 불릴 정도로 그 주변의 풍경을 많이 그렸는데, 특히 발라 발트베르타 저택의 주인과 친구이기도 해서 발라의 다양한 모습은 물론 아름다운 정원인 인근의 꽃과 나무 등을 기록화처럼 남기기도 했다. 정원의 풀 한 포기, 물방이 하나를 애정으로 묘사한 작품과 실제 저택의 모습을 비교해보면서 저택의 역사 자체가 예술임에 감탄했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110 20 point

6 8 2 4 7 5 8 1
108 14 point

2 5 1 6 4 9 7 8 3
102 12 point

1 3 0 7 5 8 4 9 2
96 10 point

2 4 6 3 7 1 2 8 0
90 8 point

4 6 2 8 1 0 9 7 3
84 6 point

2 7 0 2 1 3 0 0 2
78 5 point

0 1 2 3 4 5 6 7 8 9
72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11* 3 point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리점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철제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